

중국 영터리 분유 파동 그 후

모유의 우수성과 엄마의 마음

정지주 | KBS 보도국 국제부 기자

중국에서 싸구려 영터리 분유가 유통되면서 많은 아기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유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사건이 되기도 했다. 중국의 어머니나 한국의 어머니나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다.

“중국에서 싸구려 영터리 분유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지금까지 최소한 60명이 이 분유를 먹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4년 4월 9시 뉴스 中)

중국, 영터리 분유 파동

벌써 넉 달 전 일이다.

중국에서도 가난한 지역으로 알려진 동부 안후 이성 일대, 1개당 천원 정도에 판매되는 분유를 먹고 아기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미 60명의 아기들이 숨졌고 2백명 정도는 머리가 커지면서 다른 신체부위가 작아지는 이른바 대두증에 걸렸다.

중국 전역에 보급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저질분유에는 단백질은 극소량만 들어있고 아기 성장에 꼭 필요한 아연과 철분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다. 결국 아기들은 맹물분유를 먹고 극심한 영양

실조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영터리 분유 제조사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국 당국의 강경한 적발과 처벌을 단행하면서 분유파동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중국의 또 다른 모습

외신을 통해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보도국 내 첫 반응은 어이없음이었다.

생후 몇 개월 밖에 되지않은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들이 고통스런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누워있는 모습에는 안쓰럽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몸은 바삭 말라가고... 머리는 비대해지고... 부은건지 지나치게 찌버린 얼굴살에 아기들의 눈, 코, 입은 파묻혀 제대로 보이지조차 않았다.

잘 먹지도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기에 좀 더 나은 것을 먹여보겠다고 분유를 사먹었으나 결국 피

해를 본 것이다.

마작 마른 팔에 주사 바늘을 꽂은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의 절규... 경제대국으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다는 중국의 또 다른 모습이다.

“모유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모유속에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성인병까지 막을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4년 5월, 9시 뉴스 中)

모유의 우수성 다시한번 입증

중국에서 영터리 분유가 판을 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모유의 우수성을 알리는 각종 외신들이 들어왔다. 모유속에 있는 각종 성분들 덕분에 모유를 많이 먹인 아기가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낮다든지.

비만 예방은 물론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지 또 모유를 먹는 과정에서 엄마와 접촉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등등의 대부분 모유가 분유보다 좋다는 정보들이었다.

**엄마의 사랑은
다 똑같아
모유 관련 아이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 터라 위의 내용들은 대부분 기사화됐고 또 비중있게 뉴스로 방송됐다.

외신을 통해서 모유를 먹이는 장면들이 수신되기 시작했다.

사랑 가득한 표정으로 자식을 품에 안은 채 모유를 먹이는 엄마의 모습에선 행복과 따뜻함이 그대로 베어났다. ‘모유의 우수성’ 관련 보도가 더욱 힘을 받는 대목이었다.

영터리 분유 파동이 쓸고 지나간 중국의 엄마와 따뜻한 표정으로 모유를 먹이는 엄마..... 그 모습은 비록 극과 극으로 다를지언정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똑같이 무한 그 자체일 것이다.

